

대구 기초의회 분발을 촉구함

제5대 지방의회가 출범한지 9개월째를 맞고 있지만 대구 지역 8개 기초의회의 구·군정 질문 건수가 평균 11.75건에 불과하다는 취재 결과가 나왔다. 대구시 기초의원들이 가장 중요한 의정활동인 구·군정 질문을 이렇게 게을리 하고 있었으니 유급제 의원들이 놀고먹었다는 눈총을 면치 못하게 됐다. 이들이 이러면서도 연봉은 푹푹 챙기고 있으니 세금이 아깝다는 소리까지 나오게 됐다.

이번 지방의회 출범 이후 기초의회의 구·군정 질문 건수는 가장 많았던 서구와 북구가 21건이었다. 거기에 비해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은 6건씩이었고 동구는 단 3건뿐이었다. 동구의 경우 12개 공공기관이 입주할 혁신도시 건설을 비롯해 지역 아파트 대량 미분양 사태, 자기부상열차 동구 노선 유치 등 지역현안이 산적해 있다. 구정질문이 3건 뿐이라는 것은 누가 봐도 말이 안 된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구·군정 질문은 가장 중요한 의정활동 중의 하나이다. 조례의 재·개정의 경우 대부분 구청장이 발의한 것을 의원들이 검토해서 처리하지만 구·군정 질문은 의원들이 직접 조사하고 검토해서 최종 질문안을 마련

한다. 그런 점에서 구·군정 질문은 개별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가장 직접적인 잣대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대구시 기초의회가 이것을 게을리 한 것이다.

거기에 비해 대구시의회는 시민의 혈세를 쓰는 데는 적극적이다. 시의회는 시의회 건물 내에 개인사무실 조성하면서 6억 원 정도의 시 예산을 썼고 여직원까지 배치해 인건비 지출도 늘어나게 됐다. 뿐만 아니라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경제교통위원회 소속 등 일부 의원들은 그리스, 이집트, 터키, 스페인, 포르투갈 등 호화관 관광성 해외연수로 시 예산을 물 쓰듯 쓰고 있다.

지방의원들이 이렇게 제 할 일은 옹기 하지 않으면서 시민의 혈세로 개인사무실을 짓고 관광성 해외연수에는 열심이다. 사정이 이러하니 연봉을 받는 지방의원들이 본연의 임무는 뒷전이고 돈 쓰는 데만 관심이 있다고 광역의원, 기초의원이 싸잡아 비난을 받아도 변명할 여지가 없게 됐다. 시민들의 입에서 지방의회가 이러니 대구시가 어떻게 잘 되겠느냐는 소리가 나올 만하다.